

말씀의 샘

경향 목욕탕 이야기

시장에서 신발가게 하시면서 성실하게 살아오시던 분이셨습니다. 하루하루 착실하게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섬기시고 가정과 가게를 모범적으로 꾸려오시던 분이셨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장로님 부부입니다.

조금씩 가게가 커나가다가 아예 신발가게 정리하고 목욕탕을 하나 차리기로 결심하시고, 사시던 광명 아파트 단지에 상가 하나를 세 내어 장로님이 다니시던 교회(경향교회)의 이름을 따 '경향 목욕탕'이라는 아담한 목욕탕을 하나 내셨습니다. 물론 신발 가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니까 용자도 받으시고 해서 목욕탕을 차렸습니다.

드디어 내부공사도 다 끝나고 광고지도 다 돌렸을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린 물을 틀어 받아보았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한 것이지요. 누가 그런 냄새나는 물이 있는 목욕탕에서 몸을 씻겠습니까? 인근 안양천 썩은 물이 흘러 들어오나 보다 하고 망연자실하게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답답함으로 하나님께 매어달리셨습니다. 목욕탕 문은 열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 날 몇 일을 보내던 중, 하나님께서 "목욕탕이 문은 열든 못 열든 일단 어떻게 하면 그 냄새를 없앨 수 있나 연구는 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기도 중에 말씀하셔서 수질검사를 받았답니다.

수질 검사 결과 그 썩은 냄새의 정체는 '유황 냄새'였습니다. 정확히 달걀 썩은 냄새였던 것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유황 온천이 터진 셈이지요. 그것도 어떤 유황온천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함도를 가진 유황 섞인 물이었습니다. 양도 무진장 많이 터져서 수백년을 사용해도 넘치는 양이었답니다. 샘의 근원을 판격입니다. 수질 검사를 맡았던 연구원들도 도대체 왜 거기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에서 유황이 이렇게 많이 함유된 지하수가 나오는 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지요.

모든 로커가 짹짹 찰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심에 이런 목욕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바로 서울 강남에서도, 강북에서도, 수원에서도 목욕하러 몰려드는 '경향 유황탕'의 탄생입니다.

당연하게도 '주일은 쉽다' 명패가 목욕탕 앞에 붙어 있습니다. 휴일 장사인 주택가 목욕탕 업계에서 주일날을 쉬면 얼마나 손해 보는지는 상상이 잘 안 갈 정도이지요. 목욕탕 라운지에는 교회 주보와 전도지, 신앙서적, 텔레비전에서는 설교방송, 음악은 찬양과 가스펠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발사 아저씨, 구두닦이 아저씨, 때밀이 아저씨까지 예수 이름으로 뚝뚝 뭉쳐서 얼마나 신이 나서 손님들을 맞는지... 머리 깎으면서 전도하고, 때 밀면서 전도하고, 라운지에서 찬양도

듣고, 설교 듣고. 아무튼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기독교 카페나 음식점 옷가게는 가끔씩 봤어도, 이런 기독교 목욕탕은 처음 봅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일간지에도 보도되고, 아침마당인가 뭐 그런데도 장로님이 자주 나오셔서 인터뷰 하시더군요. 당시엔 토픽이었답니다.

이 경향 유황탕 소식이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서너 목욕탕들이 인근 상가에 난립했으나, 이상하게 물이 다르게 나온답니다. 바로 근처에서 땀에도 전혀 다른 물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몇 달 못가 다 문을 닫고, 여전히 달걀 썩는 냄새를 폭폭 풍기는 경향 유황탕은 지금도 성업 중입니다. 십일조만 매달 철저히 구분하여 드리신다고 하십니다. 또한, 교회 일에 시간과 물질로 많이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일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철저히 하시는 복된 그릇에 어찌 풍성한 은혜를 붓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일 성수와 십일조는 모든 축복을 받고 간증하시는 분들의 분명한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거부가 되셨는데도 별반 달라진 바 없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검소하게 하나님 일에 봉사하시는 장로님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벧전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할 사명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016. 5. 29 이 강화 목사

2016. 5. 29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사무엘상 16:1~13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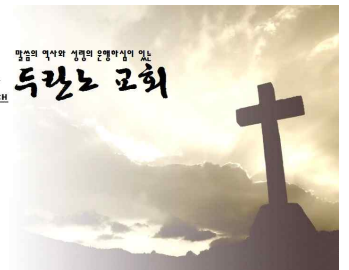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생각"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적 삶이 있는
두란노 교회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